



KB국민은행, '캄보디아 근로자 한국문화축제' 개최
 KB국민은행은 지난 7일 경기도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캄보디아 근로자 한국문화축제'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성호 KB국민은행 경기중앙지역영업그룹 대표(맨 앞줄 오른쪽에서 5번째)와 과학회 구세군자선냄비본부 사무총장(맨 앞줄 오른쪽에서 6번째) 등 50여명의 KB국민은행 직원 봉사단과 1000여 명의 캄보디아 근로자가 참석했다. /KB국민은행



KT&G 복지재단, 북한산 국립공원 7년째 나무심기 봉사
 KT&G 복지재단이 지난 6일 대학생 자원봉사자 100여명과 함께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어린 묘목을 심는 생태복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생태복원 봉사활동의 참가자들은 북한산국립공원 송추계곡 인근 산림 훼손 지역에 화살나무 2천 그루를 심고, 어린 묘목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잡초를 제거하는 등의 환경을 정비하는 활동도 진행했다. /KT&G



오뚜기함태호재단, 제23회 장학증서 수여식
 재단법인 오뚜기함태호재단이 5일 '제 23회 오뚜기함태호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재단 임원들과 2019년 신규 장학생 34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함 이사장이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으며, 34명의 장학생들은 오뚜기함태호재단으로부터 2년간 학비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오뚜기

제10회 한독 여의사 학술대상 박명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독은 제 10회 한독 여의사 학술대상 수상자로 박명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사진)가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한독은 한국여자의사회와 함께 한국 의료계 발전에 획기적인 공을 세우고 의료인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여의사에게 매년 '한독 여의사 학술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수상자인 박명희 교수는 1973

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의학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인턴과 임상병리 및 해부병리과 레지던트를 거쳐 198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병리과 전임강사로 부임해 2013년 2월까지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로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알바몬, 한국광고학회 '올해의 광고상' 수상
 알바몬은 '알바의 신기술' 캠페인으로 한국광고학회 주최 '올해의 광고상' 라디오광고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알바몬의 '알바의 신기술' 캠페인 광고는 '처음 사장님', '키워가는 사장님' 총 2편으로 이제 막 가게를 낸 초보 사장님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메시지와 가게를 옮겨 바쁜 사장님에게 든든한 조언과 응원의 내용을 담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알바몬

저녁거리를 살 수 있는 삶을 달라



이상현의 칼럼

“월급 30만원이 줄면 아이들의 학원을 끊어야 합니다. 일을 더하게 해주세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K씨의 하소연이다.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한지 9개월이 지났다. 제도위반에 대한 처벌유예기간도 지났다. 하지만 산업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삶이 나아졌다는 직장인과 경영자는 드물다. 직장인들은 급여가 줄고, 경영자들은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수익성 악화, 경쟁력 하락에 시달리고 있다. 근로자들 또한 갑자기 줄어든 수입으로 인하여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러한 고충을 털어놓기 위해 향하는 곳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이다. 청원내용의 대부분은 줄어든 급여와 늘어가는 빚, 더 쪼들린 삶에 대한 하소연이다.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제도시행취지와 정반대되는 결과다. 특히나 소상공인으로 대변되는 자영업시장은 더욱 침울한 분위기다. 최저임금 8350원과 주휴수당, 그리고 4대보험까지 지급하면 정말 어려운 환경이다. 또한 단기 일자리인 아르바이트 고용시장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주 15시간 이상 고용시 주휴수당 지급이 의무화 됨에 따라 단기간의 일자리를 늘여나가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들의 현장 목소리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수정 보완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골드타임마저 놓친다면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은 미래가 없다

고 단언한다. 저녁이 있는 삶이란 여유와 만족 그리고 행복이라는 기본 구조의 충족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한 여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뒷받침의 부족으로 오히려 파트타임 직업이나 또다른 업무를 실천해야만 한다면 제대로 모순이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저녁이 있는 삶인가 묻고 싶다. 노동의 가치는 신성하다. 급여의 많고 적음보다 일에 대한 만족과 그 가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행복이 노동의 진정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정량적 잣대에 의한 모두가 행복한 정책은 이론과 현실의 괴리와 같다고 하겠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 지금이 제도의 모순을 수정하고 개선할 적기임을 기억하자.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건설철학 박사)

KEB하나銀, 베트남 초등학교 도서관 건립

‘하나 해피 클래스 베트남’ 봉사활동 학용품 기부·명랑 운동회 등 진행

KEB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베트남 현지에서 ‘하나 해피 클래스(Hana Happy Class) 베트남’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Hana Happy Class’는 하나금융그룹의 사회공헌 대추제인 ‘모두하나데이’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부터 꾸준히 진행해 온 봉사활동이다. ‘휴머니티’에 기반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열악한 학습환경에 놓인 국내·외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건립 및 컴퓨터 교육실 설치, 시설 보수, 학용품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의 Hana Happy Class는 2015년 미얀마를 시작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 다양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활동은 하나금융그룹 스마트 홍보대사의 6번째 해외봉사활동 및 소외 아동들을 위한 그룹 및 은행의 정기 주말 봉사활동의 연장선으로 평소 사회공헌 활동 참여가 우수한 직원들을 선발해 진행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베트남 현지에서 ‘하나 해피 클래스(Hana Happy Class) 베트남’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 임직원 40여명으로 구성된 이번 봉사단은 베트남 동나이 지역의 현지 초등학교를 방문해 직접 도서관을 건립하고 1000여권의 도서를 제공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또 봉사단은 현지 학생과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 체험 시간과 명랑 운동회를 통해 마음을 나누는 ‘휴머니티’의 확산을 실천했다. 이어 KEB하나은행 호치민 지점의 직원들은 학용품이 들어 있는 행복 상자 100개를 직접 제작해 베트남 학생들

에게 전달하는 등 국내·외 직원들과 협업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KEB하나은행 사회공헌부 관계자는 “이번 ‘Hana Happy Class’ 활동이 베트남 현지 학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큰 꿈을 꿀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길 기원한다”며 “KEB하나은행은 ‘휴머니티’에 기반한 ‘함께 성장하는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외 직원들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인사

- ◆기획재정부 ○실장급 인사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이상원
- ◆농촌진흥청 ○과장급 승진 및 전보 △연구정책국 연구성과관리과장 송금찬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 발효가공식품과장 최준열
- ◆하나금융투자 ○임원 선임 ○실물투자금융본부장 정정옥 상무
- ◆EBS ○부서장 승진 △학교교육본부장 황성환 △융합기술본부장 김길호 △콘텐츠사업본부장 정지은 △스콘테크기획센터장 정성욱 △경영지원센터장 문교병 △영상아트센터장 최진근 △심의회차장실장 권윤혜 ○부서장 전보 △방송제작본부장 추덕담 △정책기획본부장 전용수 △이사회사무국장 김혜영
- ◆데일리뉴스 △편집국 경제산업부장(부국장) 정수남
- ◆애플경제 △편집국장 성기노

- ◆경인방송 △대외협력이사 이영철 △경기총국장 변승희 △방송본부장 김성민 △보도국장 구대서 △편성제작국장 유태희 △편성제작팀장 안병진 △보도국 정치행정팀장 안재균 △보도국 사회경제팀장 최상철 △경기총국 정치행정·사회경제팀장 홍성민

- ◆이옥주씨 별세, 장연동(한승서비스대표이사)·장해동·장순녀·장태동(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과장)·장희동·장희순·장숙희(서울예일여중 행정실장)씨 모친상, 민창규(서울홍파초교 교장)씨 장모상, 장우정(조선비즈 기자)씨 조모상=8일 오전 8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 ◆김봉철·전명선씨 장인상=7일 오후 4시,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9일 오전 11시 50분
- ▲최병채(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정우주조장 대표)씨 별세, 이선자(전 분당 수내초등학교 교사)씨 남편상, 최재영(LG CNS 책임)·최지은(이랜드리테일 실장)·최동균(바디밸런스디자인 원장)씨 부친상, 이강희(CJE&M 팀장)·장호진씨 시부상, 이현철(SK 네트웍스 부장)씨 장인상=8일 오전 8시 19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0일 오전 6시
- ▲이옥주씨 별세, 장연동(한승서비스대표이사)·장해동·장순녀·장태동(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과장)·장희동·장희순·장숙희(서울예일여중 행정실장)씨 모친상, 민창규(서울홍파초교 교장)씨 장모상, 장우정(조선비즈 기자)씨 조모상=8일 오전 8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